

원익IPS (030530)

N.R

Return to Glory

탐방일: 2013. 6. 3

Analyst 김지웅
02.3779-8808
jwkim@etrade.co.kr

이제 BEP 수준의 매출을 넘어 본격적인 이익 발생 구간 진입

최근 메모리 및 AP 시장의 호황이 장비업체의 수혜로 확산되는 시점이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기대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년도 동사의 ROE 수준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거 PBR 밴드 Peak 멀티플 2.4배로의 rerating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호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

탐방내용 요약

기업개요

- * 1991년 설립 / 1996년 아토 상호변경 및 코스닥 상장 / 2010년 (주)IPS 흡수합병 / 2011년 원익IPS
- * 주요주주: 원익(11.2%), 이용한(7.5%), 자사주(7.0%), 원익큐엔씨(6.1%)
 - 삼성전자 220억 전환사채 보유(전환가 3,047원, 전환시 지분율 9%)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011년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지분율 4%
- * 과거 삼성전자 및 제일모직 임원 출신 경영진
- * 임직원 현재 565명 (작년 말 기준 관리직 148명 / 기술직 207명 / 연구직 226명)
- * 연결관계사 특수가스제조업 원익머티리얼즈 지분 49% 보유 (2012년 매출 1,101억, 영업이익 235억)

주요사업

- * 매출구성: 반도체장비 59%, 디스플레이장비 13%, 가스캐비닛 등 26%, 솔라 장비 2% (2012년 기준)
- * 반도체 PE-CVD 국내 점유율 35~40% / 디스플레이 드라이에처 국내 점유율 30% (2012년 기준)
- * 주요매출처: 삼성전자 72%, 삼성디스플레이 16%, 기타 12%(2012년 기준)
- * 주요경쟁사: 반도체 TEL, 국제일렉 / 디스플레이 TEL, ULVAC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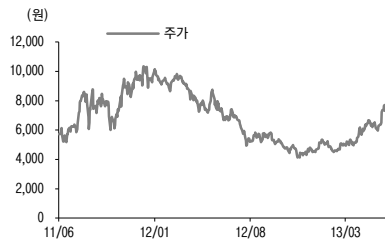
- * 전방산업 투자 축소로 작년 2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수주 및 매출 부진
 - 별도기준 2013년 1분기 매출 317억 / 영업이익 -69억 (연결기준 매출 603억 / 영업이익 -22억)
- * 올해 2분기 이후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 확대 분위기
 - 공정 미세화 및 3D 디자인 적용 수혜 본격화
 - 낸드 및 시스템 반도체용 PE-CVD 장비 및 라인 증설에 따른 가스 배관 설비 수주 가시화
 - 내년도 신규 라인 증설 수혜 기대
- * 올해 3분기 OLED 장비 관련 수주 가능성
- * 당사추정 수주 및 매출 전망: 2Q 500~600억 / 3Q 1,000억 가량 / 4Q 1,000억 가량으로 급격한 회복세

Valuation

	매출액(십억)	영업이익(십억)	순이익(십억)	EPS(원)	증감(%)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부채비율(%)
2010	247	37	27	786	116.2	11.0	1.7	6.4	11.9	39.7
2011	340	29	18	258	-67.2	37.3	2.7	17.4	5.9	59.5
2012	349	26	18	108	-75.1	43.3	1.3	9.3	3.0	42.5
2013F	434	47	25	342	216.7	21.4	1.8	9.9	8.9	34.1
2014F	633	97	65	888	159.6	8.2	1.5	5.3	19.8	29.5

주: FnGuide Consensus 기준 (IFRS 연결 기준)

원익IP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 시	2013.06.07
투자의견	N.R.
목표가역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지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